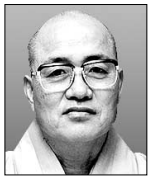


일주문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석암장학회장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은 9월 3일 만불전에서 제61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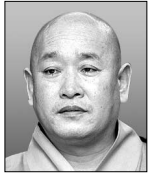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동문회 운영위 회의
김포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정년 스님(월정사 주지)은 9월 22일 오후 3시 승가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02)922-7881



3대 종교 연합바자회
서울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은 10월 8일 오전 10시-오후 5시 난치병환자 돕기 3대종교 연합바자회를 실시한다.(02)990-1885



광릉시 장애인 바둑대회
광릉시장애인복지관장 현각 스님은 9월 8일 복지관 2층에서 장애인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광릉시 장애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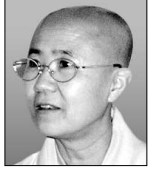
정량사 산수음악회
봉화 정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10월 1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생명, 당신을 존경합니다' 주제 산수음악회를 연다.



동국대 정각원 개강법회
서울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은 9월 22일 증강당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의 사명' 주제로 2학기 개강법회를 봉행한다.



영남불교대 가을음악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9월 10일 경산 남천 둔지에서 난치병환자 돕기 '참 좋은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장기대회 및 산수영화제
청주 화장사 주지 무진 스님은 9월 10일 화장사 앞 특설무대에서 청소년 장기경연대회와 명암산 산수영화제를 개최했다.



전 대학교 학생 식문화 교류협정
경주 위덕대 한재숙 총장은 9월 1일 일본 효고영양조리제과전문학교와 대학생 식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전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으로 이전했다. 이로써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과 함께 교육원까지 3원이 모두 새로 지어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물로 입주해 완료했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그대로다.(02)2011-1800-1

“역경불사 후원은 모든 불자의 몫”

무진장 스님,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취임

“은 힘을 다해 월은 스님이 펼치고 있는 역경사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석주 스님의 원적으로 공석이던 동국역경원후원회장에 무진장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이 추대됐다.



동국역경원장 월은 스님이 무진장 스님(사진 왼쪽)에게 후원회장 추대패를 전달하고 있다.

동국역경원장 월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9월 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된 추대식에서 무진장 스님은 역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후원회는 1995년 발족해 2005년까지 총 16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동국역경원에 지원해, 후원회 없는 동국역경원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경사업의 큰 비중을 담당했다. 지금은 총 회원 4500명에 지속적으로 회비를 내는 이는 350명에 불과해 다소 추후한 상태지만 무진장 스님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은 스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무진장 스님은 “후원회장은 자금을 끌어 모을 재주가 있어야 하는 할텐데 누더기 한 벌만으로 살아온 내가 과연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혼쾌히 승낙할 수 없었다”면서도 “동국역경원이 이 대장경 개역과 재발간 및 전산화 등 남아있는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월은 스님은 “무진장 스님의 정법포교 원력에 힘입어 역경사업의 의미가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무진장 스님은 “특히 종단이 우선 역경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불자 여러분 모두가 후원회원이 돼 도와달라”고 동참을 당부했다. 글·사건·박익순 기자

불자검사 김희옥씨 법무부 차관에 임명

사법연수원 불자모임 '다르마 법무회'를 창립한 김희옥(57·사



진) 서울동부지검장이 9월 6일 신임 법무부차관에 임명됐다. 김 차관은 1995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다르마 법무회' 창립을 지도했으며, 동국대 총동문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문인상'을 수상하는 등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경북 청도 출신인 김 차관은 1972년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지검 남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1차장 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서울에 우리시대 ‘나란다’ 대학을”

바트 前 델리대 교수 동국대 특강서 강조

“불교학 발전을 위해 불교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불교가 불교학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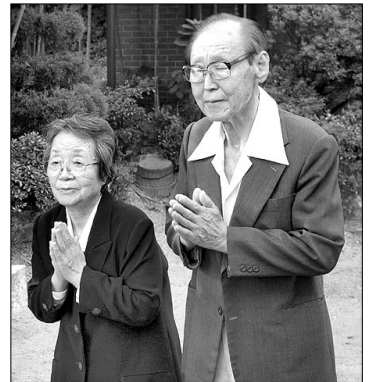
9월 7일 열린 동국대 불교문화원 해의 불교학 초청강연에서 S.R. 바트 前 델리대 교수(사진)는 “이 시대의 나란다대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서울에 세워져야 한다”며 “한국이 ‘국제불교연구소’를 건립해 과거 인도처럼 인류정신사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불교연구의 동향과 전망’ 주제로 강연한 바트 교수는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양 학자들과 암베드카르 박사, 달라이라마의 최근 노력에 의해 인도 불교와 불교학 연구는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바트 교수는 “불교 사상의 원천

인 팔리어 문헌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할 수 있지만, 불교사상의 철학적 핵심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철학적 바탕에 대한 연구가 없다면 문헌학이나 원전연구의 정지한 분석은 근시안적인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바트 교수는 이어 “인도 내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연구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기도에 끝나 시작 있나요?”

1만5천원 기도회향 박관섭·이재란 부부

1만5천원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는 기도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효천 박관섭(89·前 건국대 교수·사진 오른쪽) 관음성 이채란(88·시조시인) 부부. 그들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대작불사를 9월 4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500여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향했다.



“뭘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그대로 따르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했을 뿐이지요.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생활인데 어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수 있겠어요.” 41년 25일간의 기도를 회향하고도 노부부는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해왔던 대로, 육신의 집을 털어내는 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기도처는 다른 아닌 반평생을 살아온 그들의 집이었다. 노부부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높은 터에 40여년전 집을 짓고 기도를 시작했었다. 집을 떠나는 날에는 버스, 비행기, 호텔 등 어느 곳이든 기도처였다. 기도에 입제한 뒤 서재에 불단을, 뜰에는 부모은중탑과 쌍사자석등을 모셨다.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일본헌병에 붙잡혀 고문으로 4개월 새 차례로 유명을 달리던 증조부와 조부, 아버지,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형님, 장조카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명복은 여인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뭘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그대로 따르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했을 뿐이지요.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생활인데 어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처는 다른 아닌 반평생을 살아온 그들의 집이었다. 노부부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높은 터에 40여년전 집을 짓고 기도를 시작했었다. 집을 떠나는 날에는 버스, 비행기, 호텔 등 어느 곳이든 기도처였다.

기도에 입제한 뒤 서재에 불단을, 뜰에는 부모은중탑과 쌍사자석등을 모셨다.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일본헌병에 붙잡혀 고문으로 4개월 새 차례로 유명을 달리던 증조부와 조부, 아버지,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형님, 장조카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명복은 여인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경찰불교회 3기 집행부 출범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 제3기 집행부 출범 법회가 9월 3일 경찰청 법당에서 봉행됐다. 경찰불교회는 문영관 사무국장(서울지방경찰청 감사관) 등을 비롯한 분과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법회에서 경찰불교회 고문 안도 스님은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경찰철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바자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9월 4일 조계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동대문시장 상인들에게 후원받은 의류 3천 여 점을 판매해 91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사회복지재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자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앞으로 열 계획이다.

Advertisement for Simbada (심빤다) ginseng products. Features a large image of ginseng roots and text: '심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Includes contact info for Hyunpung F&B Co., Ltd. (02)447-9114.

Advertisement for Durian (두리안) sale. Features a large image of durians and text: 'Sale! 과일의 왕 두리안', '대덕스님들과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Includes website www.durianshop.com and contact info for Durian Shop.